



2024년 / 5월 4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5월 21일(화)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5월 25일(토) 16시 : 전주시 인문주간 공동기획 인문강좌

## ■ 연구원 소식

### - 전주시 인문주간 공동기획 강좌 안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인문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일상에서 손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문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기획행사에 참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16시~18시

장소: 전주대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소설가가 들려주는 한옥이야기 -한옥이 나를 소설가로 만들었다-

강사: 소설가 황지호

대상: 회원 및 시민

강의 장소 관계로 스무 분 정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헌법 기관을 겁박한 공수부대 - 1964. 5. 21

민정 이양 이후 박정희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졸속적인 한일회담이 추진되던 1964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굴욕외교반대 학생총연합회 주최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라는 시위에서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낫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김지하의 조시가 낭독되었고 경찰은 180여명의 시민과 학생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런데 당일 영장 담당 양헌 판사는 대다수 피의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상식에 근거 영장을 기각한다. “돌을 던지지 않았다.” 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 보라.” 고 올렸던 조서 앞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사단은 다음날 새벽 터졌다. 서울 서소문 법원 청사에 군용구급차 한 대가 들이닥쳤다. 권총과 소총, 수류탄으로 무장한 13명의 공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법원 수위에게 당직 판사를 내놓으라고 올렸고 퇴근한 것을 알게 되자 동소문동 돈암초등학교 옆에 있던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데모학생들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다그치며 영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양헌 판사가 “자연인으로서 한 개인이지만 영장에 서명할 때는 엄연한 헌법기관” 이라며 영장발부를 거부하자 급기야 수류탄을 꺼내들고 “우린 돌아가도 죽으니 여기서 자폭하겠다” 는 협박까지 자행하였다. 황해도 해주태생으로 해주중학교 졸업 후 18세에 월남하여 경기도청 주사로 근무하다 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던 그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임을 강요하며 영장에 서명하라고 겁박한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 공수부대원들이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에게 대통령 박정희가 “그런 법관을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1991. 5. 24 동아일보 인터뷰 중)

정권은 그를 공언한대로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 1973년 재임용탈락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판단에 대한 겁박.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의 또 다른 장이었다.

## ■ 유영봉 교수와 함께 걷는 DMZ 이야기

경기평화누리길 제 7구간 - 2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우리 집에는 어른의 생일을 차리는 법이 없다. 부모의 생사도 모르고 사는 자식이 저 먹자고 제 손으로 생일을 차릴 수는 없는 일이기예.

고향 생각이 간절한 것은 추석을 맞을 때다. 이날 우리는, 차례를 지낼 대상이 없으므로 일찌감치 등산복 차림을 하고 우이동이나 도봉산으로 간다. 거기서 달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들국화의 향기를 맡는다.

개울의 돌을 들추어 가재를 잡는다 하며 신명나게 놀지만, 나는 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북녘 하늘 한끝에 시선을 박은 채 끝없는 추억과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뭉쳐진 덩어리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날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나의 살던 고향은....." 아이들은 흥겹게 합창을 하지만, 나와 아내는 어느새 착잡한 심정에 잠기고 마는 것이다.

이럴 때 사진첩이라도 펼쳐보면 좀 나으련만, 고향의 사진은 한 장도 없으니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결혼사진만이라도.....”

하고 아쉬운 푸념을 되뇌다. 그러니, 차라리 눈이라도 감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명멸하는 것이다.

8.15 직후 서울에 온 나는, 고향이 그리고 궁금하여 그해 겨울 방학과 이듬해 여름 방학, 두 번을 고향에 다녀왔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집에 닿아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보안대에 끌려갔다. 그리고 당일로 60리가 넘는 군청 소재지의 보안서에 연행되어 1개월간의 교화소 신세를 졌다. 그때의 죄명은 우습게도 ‘하경자下京者’라는 것이었다. 서울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런 해괴한 이름이 붙은 것이었다.

출감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나의 절친했던 친구의 한 사람이며 그쪽에서 열성적으로 깃발을 날리던 Y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도 나고, 나오게 한 것도 나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순간, 등골을 스쳐 내리는 전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서울로 돌아온 후 얼마동안은, 고향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고향 꿈을 꾸면 꼭 붙잡혀가서 옥을 보는 장면만 나타나고, 빨리 서울에 가야겠는데 하고 신음하다가 깨는 것이다. 그 그리운 고향이 왜 무서운 꿈으로만 나타나는 것일까?

어머니가 그리다. 나는 어릴 때, 수양버들이 서 있는 우리 집 앞 높직한 돌각담에 올라가 아득히 먼 수평선 가를 스쳐 가는 기선을 바라보면서, 외국으로 유학 간 아저씨들을 그려보곤 했었다. 이젠 80이 넘으셨을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그 돌각담에 홀로 서시어, 터널 속으로 사라지는 남행열차의 기적소리를 들으시며, 흩어져가는 기차 연기 저 너머로 안타깝게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